

F-06 은퇴 전후 투자위험 조정

평균수익률보다 손실의 시점·회복기간·생활비 인출이 만나는 위험을 관리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은퇴 직전과 초기에 큰 손실이 나고 **생활비**까지 인출하면 같은 평균수익률이어도 자산이 더 빨리 줄 수 있습니다.
수익률 목표뿐 아니라 **생활비** 완충자금과 매도순서를 정해야 합니다.

은퇴투자는 무조건 **안전자산**으로 옮기거나 수익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. 필요시점·손실회복기간·인출률·분산·비용을 바탕으로 위험예산을 다시 배치합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수익률 순서위험

초기의 손실과 인출이 겹쳐 자산수명을 크게 줄이는 위험입니다.

생활 예: 은퇴 첫째 급락 때 **생활비**를 위해 손실자산을 매도합니다.

생활비 완충자금

시장하락 때 위험자산을 급히 팔지 않도록 마련한 유동자금입니다.

생활 예: 가까운 기간의 필수지출을 별도 자산으로 둡니다.

재조정

목표 비중에서 벗어난 자산을 정한 **기준**에 따라 다시 맞추는 행동입니다.

생활 예: 상승자산 일부를 줄여 **생활비** 묶음을 채웁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필수**생활비**와 투자목표를 구분한다
- 2단계. 가까운 기간의 인출예정액을 표시한다
- 3단계. 큰 손실 때 매도해야 할 자산을 확인한다
- 4단계. 자산별 역할과 목표비중을 정한다
- 5단계. 재조정·인출·위험축소 규칙을 문서화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은퇴 초기 **생활비**를 유동자산으로 분리해 손실매도를 줄인다

반대 접근: 평균수익률이 높으므로 **생활비**까지 위험자산에 둔다

이유: 손실과 인출이 겹치면 회복 전에 보유수량이 줄어듭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정한 비중과 범위에 따라 재조정한다

반대 접근: 최근 오른 자산을 더 사고 손실자산은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둔다

이유: 전망과 감정에 따른 행동은 집중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같은 평균수익률이지만 손실 순서가 다른 두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**생활비** 인출 뒤 잔액을 비교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
-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향후 2년 안에 쓸 돈과 장기투자금을 구분해 표시합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금융위원회 고위험상품 투자 유의 안내

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910>

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정보

<https://csa.nps.or.kr/ohke/rtpdltinfo/fncf/UHKE0301M0.do>
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
<https://100lifeplan.fss.or.kr/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